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관한 연구

최 나 영 · 김 문 숙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97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1980년대는 정부조직으로 환경청을 발족함으로써 건축, 산업디자인, 제품포장, 패션디자인 및 섬유제품 등 전산업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가치관은 물론 소비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섬유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in Textile and Clothing)를 선진국들이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한국 의류 시험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Q-마크(품질 보증 검사필 마크)와 Good Health 마크제도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도의 개념에 근접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환경문제에 대해 저조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때, 미국의 섬유산업은 환경보존을 위해 지난 10년동안 13억달러를 투자해왔으며, 대부분의 섬유 제조업자들은 환경적 압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절차, 정책과 기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Du Pont과 Levi Strauss와 같은 회사들은 생산공정 과정에서의 환경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한 상품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 경제환경이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은 각국 바이어들에 의해 세계무역시장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세계 교역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제품의 공정단계에서부터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데 더많은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생산에 노력할때 비로소 세계 교역시장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섬유업계에서는 환경마크를 부여할 제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는 텍스타일과 패션 디자이너들도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몇몇 디자이너들에 의해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 패션디자인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의류학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복식디자인의 제안, 의류제품에 대한 환경의식과 환경보전행동, Recycling Fashion Design, 그리고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등에 관한 몇몇 연구 중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만 연구되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섬유와 직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환경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섬유업계와 디자이너들에게는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 사례연구를 통하여 텍스타일 디자인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관한 연구는 환경친화적인 패션디자인에 관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의를 지니며, 섬유업계에는 세계화되어가는 무역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 개념과 사례들을 제시해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텍스타일과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환경을 고려한 소재로는 어떠한 제품이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소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섬유·의류제품에 환경마크(Eco-label)를 부착함으로써 선진국 섬유 시장을 개척하고 나아가서는 선진국형 섬유산업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회복의 기회에 도전해야 한다.